영남의대학술지 제21권 제2호
Yeungnam Univ. J. of Med.
Vol.21 No.2 p151-166, Dec. 2004

□ 원저 □

중국거주 조선족 여성의 영적 안녕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성덕 · 이종범 · 김진성 · 서완석 · 배대석 · 박순재 · 주열 · 염형욱 · 김승원* · 김구묘* · 안영록* · 황대홍* · 표미자* · 조창열* · 정태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연변뇌과 병원 정신과*

The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the Mental Health of the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Seung-Deuk Cheung, Jong-Bum Lee, Jin-Sung Kim, Wan-Seok Seo, Dai-Seg Bai, Soon-Jae Park, Yeol Joo, Hyoung-Uk Youm, Cheung-Yuan Jin*, Jiu-Miao Jin*, Yeung-Log Ahn*, Da-Hong Huang*, Mei-Zi Biao*, Tai-Ji Zheng*, Chang-Lie Zhao*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Department of Psychiatry, Yanbian Brain Hospital, JiLin Prov., P.R. of China*

－Abstract－

Background: Spirituality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Transpersonal Psychology and is believed to have a large effect on the mental health because it has been systematiz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level of spiritual disposition on human beings along with its effects on one's mental health.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targeted 400 women residing in Youn-Gil city of JiLin Prov., which is a district of the Cho-Sun tribe in China. Their spiritual well-being was studied using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Korean Version.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consists of 2 sub-scales of religious well-being and existential well-being. The study was evaluated using a lie scale, psychotic trend, and a combined anxiety-depression scale. The results were considered to be factors of one's mental heal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each tendency was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total score of the Cho-Sun tribal women according to the spiritual well-being

이 논문은 200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되었음.
책임저자 : 정성덕, Fax: 053) 629-0256
E-mail: sdcheung@med.yu.ac.kr

scale was 68.29 which was much less than the 100.65 of Korean Christian women.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the Lie trend. However, it was found that 86%(344) of Cho-Sun tribal women scored above 70 in the Lie trend with a mean score of 74.57 which is higher than normal population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tic trend, the psychotic trend became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religious well-being was at a high level. On the other hand, the psychotic trend became significantly lower when the existential well-being was at a high level.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the anxiety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religious well-being was at a high level. However, the anxiety level was significantly low when the existential well-being was at a high level.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depression level was somewhat significantly high when the religious well-being was at a high level. However, the depression level was significantly low when the existential well-being was at a high level.

Conclusion: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a person's mental health among Cho-Sun tribal women in Youn-Gil city of JiLIn Prov., P.R. of China. The results found that the religious well-being, which is a sub-scale of spiritual well-being, had negative effects while the existential well-being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These results proved that a person's religious disposition had negative effects on their mental health in a communitarian society.

Key Words: Spirituality, Cho-Sun tribal women, Mental health

서 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영성(spirituality)을 인간의 속성으로 인정하는 심리학의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있어왔으며, 1968년에는 Maslow, Frankl, Grof 및 Fadimam 등[1]이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심리학의 이름을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으로 부르자고 했으며, Assagioli는[2] 영적(spiritual)이란 용어 대신에 자아초월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성 가운데에서 영성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심리학의 변천과는 달리 Freud는 인격 구조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인격은 원자아,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고[3, 4], 종교성이나 영성은 정신건강에서 볼 때 불건강한 현상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약 2500년 전 Platon[5]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리비도적 부분(libidinous part), 이성적 부분(rational part), 영적 부분(spirited part)으로 설명 할 때에는 인성 속에 영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 Jung은[6]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 신성(numinosity)이 내재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성 가운데 있는 영성(spirituality) 혹은 신성(deity)을 정신건강 증진 내지 정신 치료에 도입시키

는 운동을 전개한 분야가 자아초월 심리학과 자아초월적 정신의학이다.[7, 8]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식에 영성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근래에는 인성 가운데 있는 영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정신의학계에 받아들여져 1990년에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종교를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치료자가 영적 문제를 고려하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공식지침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9] Lucoff와 그의 동료들은 정신질환 진단통계 편람 제4권에 종교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채택되도록 하였음과 더불어 1996년에 발간된 정신의학지침서[10]와 최근 정신의학연보(psychiatric annals)에는 정신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으로 종교와 영적 문제를 제시하였다.[11] 그 후, 1999년 발행된 정신과 교과서인 Kaplan & Sadock의 정신의학 종합지침서(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7판에서는 자아초월 정신치료의 역사와 이론적인 쟁점 및 기법 등이 채택되었다.[12]

이에 저자들은 영성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적안녕척도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바 있었는데 그 대상을 기독교인으로 하였다.[14] 이와 연관된 후속 연구의 일부분으로 종교가 인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인 중국[13]의 조선족 자치구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성 정도가 정신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흔한 증상인 불안과 우울 경향을 포함하여 정신병적 경향 및 허위성 경향 등을 측정하였고 이것들을 영적 안녕 정도와 연관시켜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총점과 두 개의 하위 척도인 종교적 안녕성적과 실존적 안녕성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유의성을 찾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연변 조선족 자치구내 연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변뇌과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 수명이 직접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영성의 측정은 1982년에 Paloutzian과 Ellison이 개발한 것을 정성덕[14] 등이 번역하여 2000년에 신경정신의학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한국판 영적안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가지 하위 척도인 종교적 안녕(religious well-being)척도와 실존적 안녕(existential well-being) 척도가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20점에서 120점까지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척도이다(Table 1). 불안과 우울의 측정은 Zung의 불안, 우울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김창수와 정성덕이 개발하여 1989년에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한 불안-우울 통합척도(Combined Anxiety-Depression Scale: CADS)를 사용하였다(Table 2). 이 척도는 25개 문항으로 불안-10개 문항과 우울-10개 문항, 그리고 불안과 우울 공유증상의 문항이 5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불안과 우울은 각각 15개 문항이 된다. 불안과 우울은 각

Table 1. Total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scale among 400 Korean women at Yanbian

Items	Mean ± SD
1. I don't find much satisfaction in private prayer with God 나는 나의 기도로 인해 나타난 효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기도와 대등한 기원, 묵상, 명상,염원 등도 해당됨)	1.59 ± 1.36
2. I don't know who I am, where I came from, or where I'm going.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5.57 ± 1.02
3. I believe that God love me and cares about me.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신(GOD) 혹은 신적인 존재	1.52 ± 1.15
4. I feel that life is a positive experience 나는 인생을 하나의 값진 경험을 쌓는 데라고 생각한다.	3.62 ± 1.83
5. I believe that God is impersonal and not interested in my daily situations. 나는 신이 인간과는 달리 비인격적인 존재이며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	3.24 ± 1.86
6. I feel unsettled about my future.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정감을 느낀다.	4.39 ± 3.36
7. I have a person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2.23 ± 1.85
8. I feel very fulfilled and satisfied with life. 나는 인생에 대하여 충만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4.08 ± 1.84
9. I don't get much personal strength and support from my God. 나는 신으로부터 많은 힘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	3.77 ± 2.96
10. I feel a sense of well-being about the direction my life is head in. 나는 나의 미래가 내가 바라는 대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더욱 잘 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4.56 ± 2.25
11. I believe that God is concerned about my problems. 나는 신이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2.36 ± 1.92
12. I don't have enjoy much about life. 나는 인생을 재미있게 즐기지 않는다.	4.16 ± 1.69
13. I don't have a personally satisfying relationship with God.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3.55 ± 1.94
14. I feel good about my future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다.	3.63 ± 2.35
15. My relationship with God helps me not to feel lonely. 나에게는 신이 있으므로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2.21 ± 1.83
16. I feel that life is full of conflict and unhappiness. 나는 인생이 갈등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다.	4.83 ± 1.79
17. I feel most fulfilled when I'm in close communication with God. 나는 신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낀다.	2.27 ± 1.92
18. Life doesn't have much meaning. 인생은 큰 의미가 없다.	4.56 ± 1.95
19. My relation with God contributes to my sense of well-being. 신과의 관계는 나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27 ± 2.98
20. I believe there is some real purpose for my life. 나의 인생에는 어떤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3.91 ± 1.64
Religious well-being scale	25.01 ± 8.40
Existential well-being scale	43.27 ± 6.76
Total	68.29 ± 9.42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Total score of combined anxiety depression scale among 400 Korean women at Yanbian

Items	Mean±SD
1. Anxiousness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이 자주 난다.	1.87 ± 0.77
2. Fear 나는 요즘 공연히 두려워져서 어쩔 줄 모른다.	1.91 ± 0.89
3. Mental disintegration 나는 요즘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만사가 번거롭다.	2.13 ± 1.18
4. Body aches & pains 나는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뻣뻣하다.	2.10 ± 0.99
5. Paresthesias 나는 손발이 떨리고 팔다리에 쥐가 잘나고 저린다.	1.76 ± 0.80
6. Restlessness 나는 안절부절 하여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렵다.	1.77 ± 1.37
7. Facial flushing 나는 쉽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진땀이 잘 난다.	1.71 ± 0.31
8. Faintness 나는 숨이 차거나 답답하여 졸도하거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67 ± 1.11
9. Dissatisfaction 나는 사소한 일에도 불만이 더 많아졌다.	1.74 ± 0.71
10. Palpitation 나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딱거릴 때가 잦다.	1.68 ± 0.76
11. Indecisiveness 나는 요즈음 기분이 언짢아서 하루 지나기가 괴롭다.	1.84 ± 0.79
12. Dizziness 나는 요즈음 머리가 둔해진 것 같고 어지럽다.	1.92 ± 0.82
13. Fatigue 나는 고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잘 온다.	2.25 ± 1.89
14. Sleep disturbance 나는 잠을 설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귀찮다.	2.14 ± 0.86
15. Night · mare 나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2.11 ± 1.36
16. Crying spells 나는 과거가 후회스럽고 사소한 실수가 자꾸 맘에 걸린다.	1.89 ± 0.97
17. Psychomotor retardation 나는 움직이기도 싫고 말조차 하기 싫다.	1.71 ± 0.87
18. Decreased libido 나는 이성교제에 관심이 줄어들고 성적 욕구도 줄어든다.	1.72 ± 0.93
19. Weight loss 나는 점차 체중이 줄고 있다.	1.43 ± 0.80
20. Indigestion & decreased appetite 나는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	1.59 ± 0.98
21. Loss of interst 나는 전보다 더 울적해져서 의욕이 떨어진다.	1.61 ± 0.81
22. Depressed affect 나는 요즈음 슬픈 마음이 잘 들고 울어버리고 싶어진다.	1.61 ± 0.83
23. Hopelessness 나는 장래가 절망적이다.	1.54 ± 0.92
24. Apprehension 나는 일과나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1.57 ± 0.74
25. Suicidal rumination 나는 살기가 귀찮고 죽어버리고 싶다.	1.53 ± 0.74
Anxiety Total	28.26 ± 9.08
Depression Total	26.31 ± 9.29
Total	44.88 ± 14.74

SD, standard deviation.

각 15점에서 60점에 속하고 불안-우울 총점은 25점에서 100점에 속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우울이 심한 상태를 말해준다. 총점은 50점 이상일 때 불안-우울증세가 진단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해당된다.[14]

정신병적 경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정신질환진단통계 편람 제4판[16](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DSM IV)에 실린 정신분열증의 진단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Schneider[17]가 말한 정신분열증의 1급 증상을 참조하여 5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총점은 5점에서 30점까지 평가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적 경향이 높게 평가된다.

허위성 척도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의 허위성 척도(lie scale)인 15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는데 9개 항목이 부정적인 경우 유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18]

통계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0.0)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인구 통계학적 평가

연구 대상자인 연변조선족 여성(연변여성으로 약함) 400명 중 282명은 기혼이였고, 118명은 미혼이였으며, 평균 나이는 45.56세였다. 대상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10명, 중학교가 53명, 고등학교가 206명이였고, 대학 이상은 131명이였다. 이들의 종교는 대부분인 376명이 없었고, 기독교가 7명, 천주교가 9명, 불교가 3명이였으며,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7명 있었다(Table 3).

Table 3. Demographic data and religion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Variable		N=400 (%)
Age(mean±SD)		42.56 ± 11.16
Marital status	Marrid	282 (70.5)
	Unmarried	118 (29.5)
Education	Elementary or below	10 (2.5)
	Middle	53 (13.3)
	High	206 (51.5)
	College and below	131 (32.8)
Religion	Christian	7 (1.8)
	Catholics	7 (1.8)
	Buddhism	3 (1.0)
	None	376 (94.5)
	Etc.	7 (1.8)

SD, standard deviation; N, number of subjects.

총 점

영적 안녕 척도로 평가한 총점은 68.29였는데 종교적 안녕 점수는 25.01, 실존적 안녕점수는 43.27이었다(Table 4).

영적 안녕 정도와 허위성 성적과의 관계

허위성 척도로 평가한 성적은 74.57로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여성은 86%(344명)나 되었다(Table 4).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을수록 허위성 점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하였으며 종교적 안녕 및 실존적 안녕 두 하위 척도의 점수도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영적 안녕 정도와 정신병적 경향과의 관계

Table 4. The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scale, Lie, psychotic and combined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Scale (total score of each scale)		Mean ± SD (N=400)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Well-Being (60)	25.01 ± 8.40
	Existential Well-Being (60)	43.27 ± 6.76
	Total (120)	68.29 ± 9.42
Lie Scale*		74.57 ± 12.61
Psychotic Trend (30)†		16.22 ± 7.54
Combined Anxiety & Depression	Anxiety (60)	28.26 ± 9.08
	Depression (60)	26.31 ± 9.29
	Total (100)	44.88 ± 14.74

SD, standard deviation. * T scores in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ean=50, SD=10 distribution).
† Change to percentage 53.5%.

영적 안녕총점이 높을수록 정신병적인 경향이 경미하게 높아졌으나, 유의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38, p>0.05). 그러나, 하위척도인 종교적 안녕의 경우, 그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병적 경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r=.325, p<0.01)(Fig. 1). 이에 비하여 실존적 안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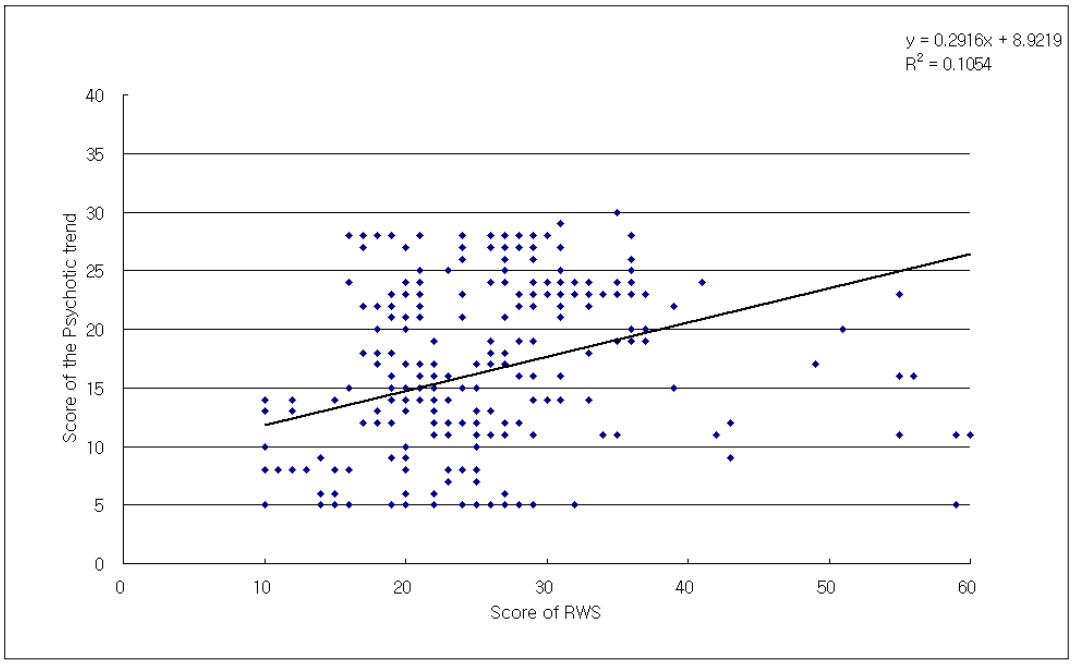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Religious Well-being Scale and psychotic trend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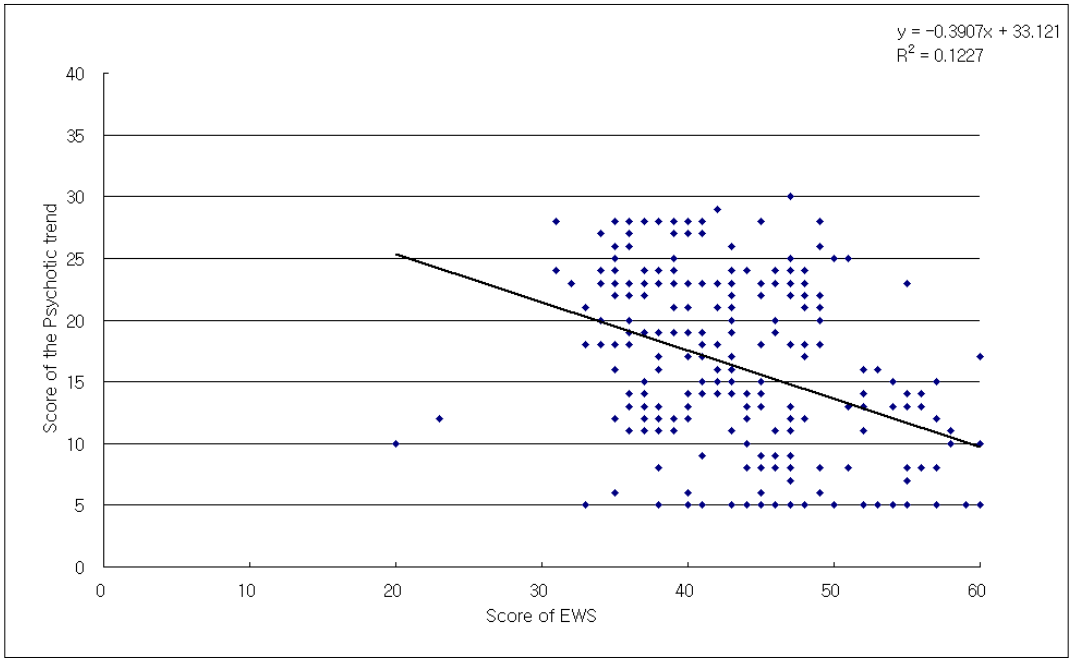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Existential Well-being Scale and psychotic trend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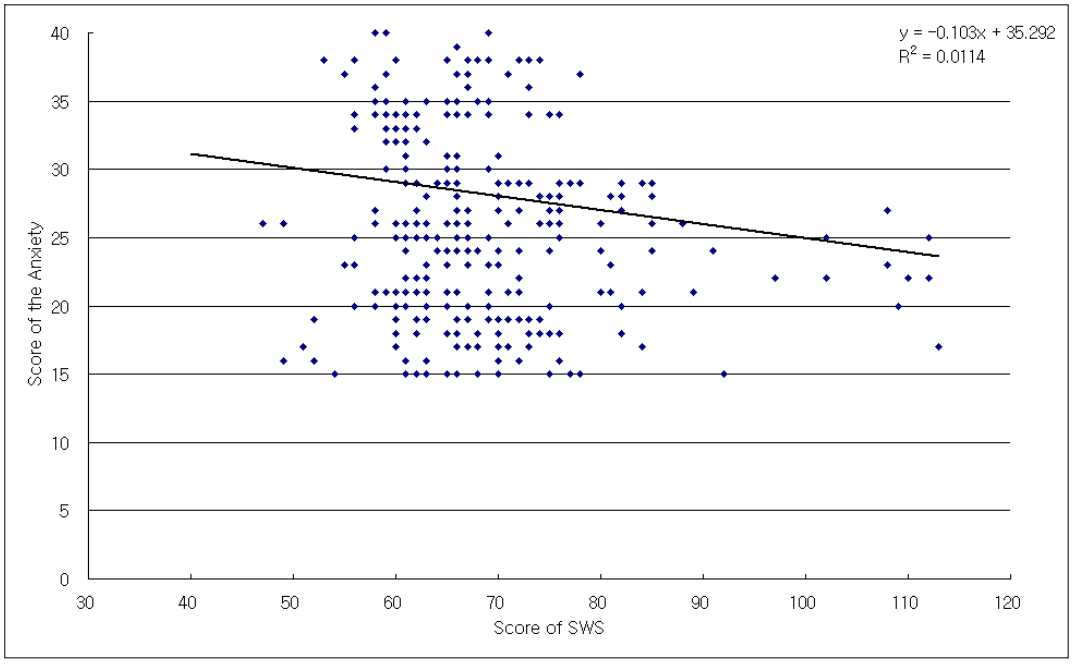

Fig. 3.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Scale and anxiety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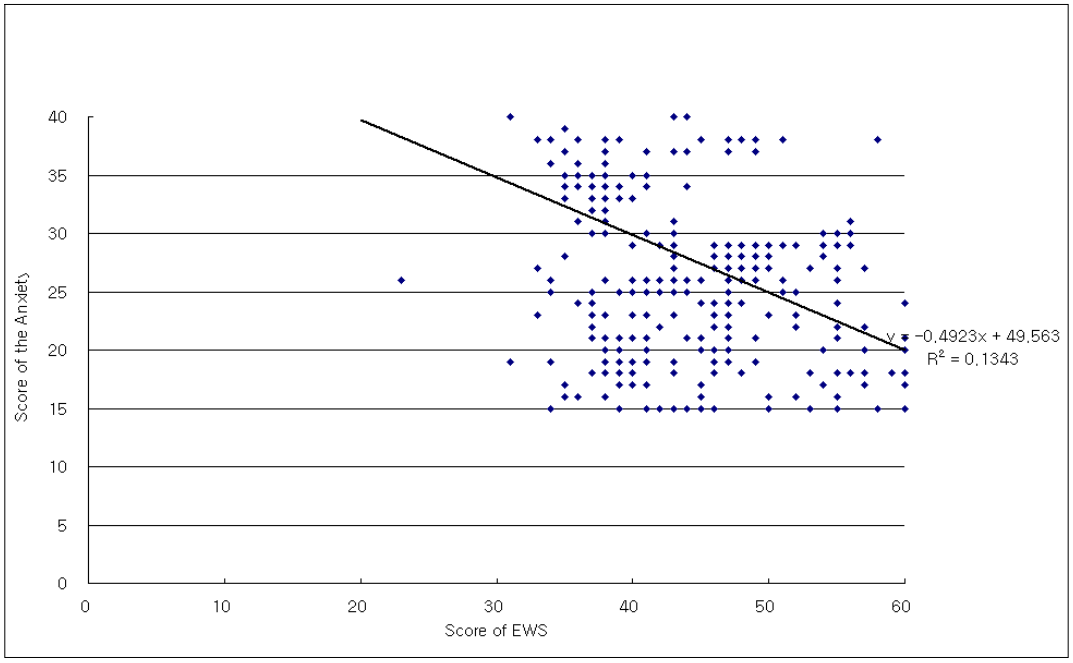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Existential Well-being Scale and anxiety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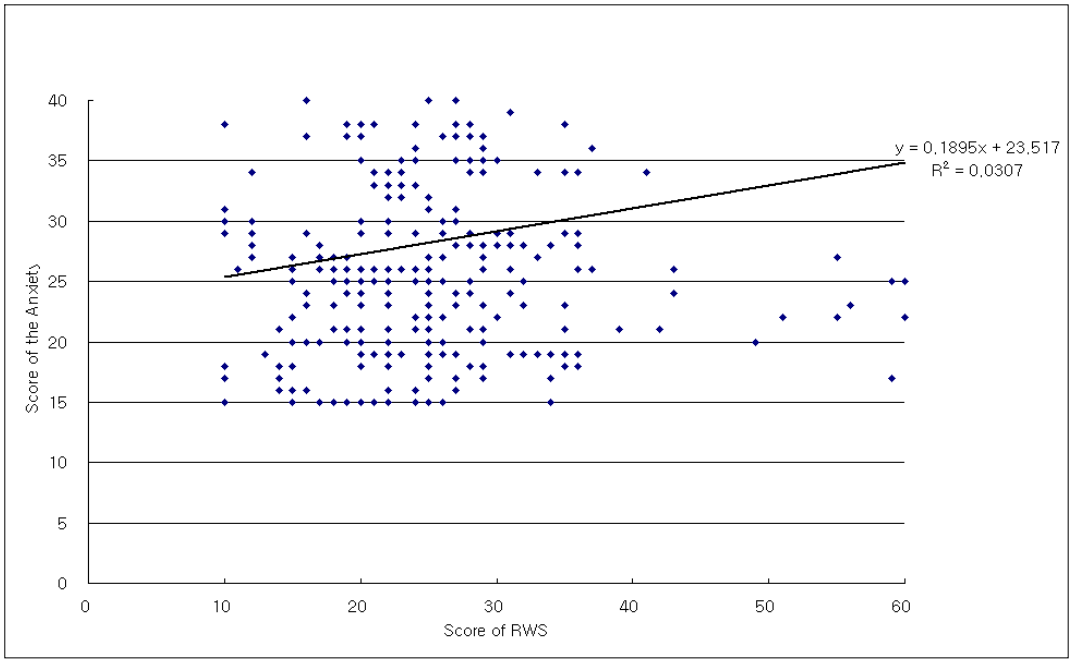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Religious Well-being Scale and anxiety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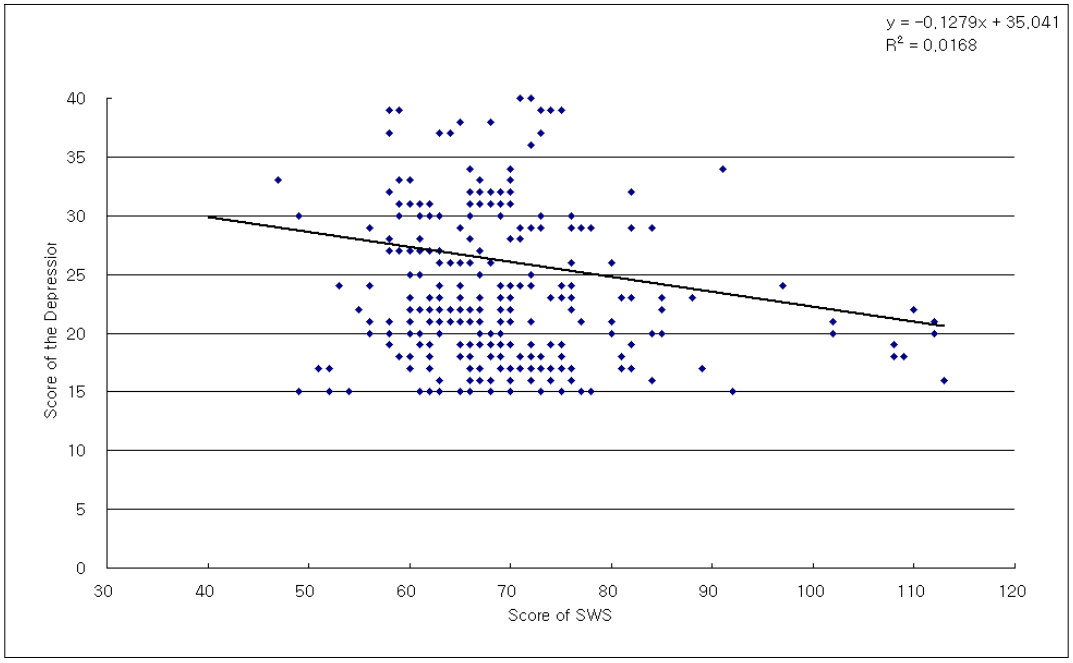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Scale and depression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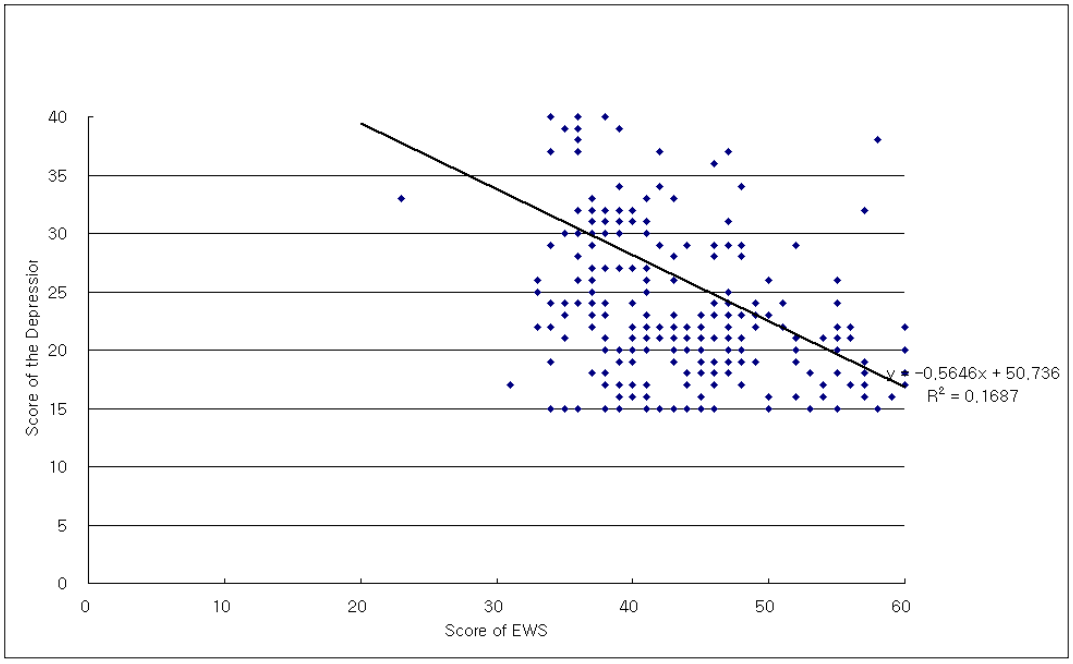

Fig. 7.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Existential Well-being Scale and depression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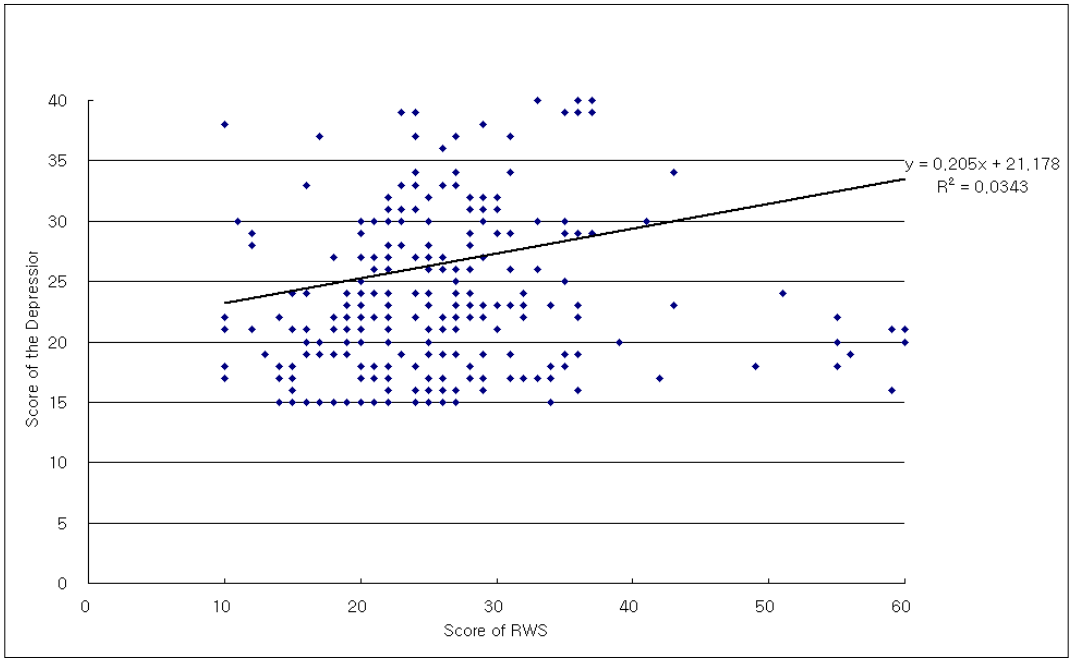

Fig. 8.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 of Religious Well-being Scale and depression among 400 Chosun tribal women residing in P.R. of China.

경우, 그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병적 경향이 유의하게 낮아졌다(r=-.350, p<0.01)(Fig. 2).

영적 안녕 정도와 불안 성적과의 관계

영적 안녕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성적은 경미하지만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r=-107, p<0.05)으로 나타났다(Fig. 3). 특히 하위척도인 실존적 안녕성적은 높을수록 불안 점수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r=-.366, p<0.01)으로 나타났다(Fig 4). 그러나, 종교적 안녕 하위척도의 성적은, 경미하지만 그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r=.175, p<0.01)으로 평가되었다(Fig. 5).

영적 안녕 정도와 우울 성적과의 관계

연변 여성은 영적 안녕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경미하지만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r=-130, p<0.01)으로 나타났다(Fig. 6). 특히 실존적 안녕 하위척도의 성적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r=411, p<.0.01)으로 나타났다(Fig. 7). 그러나, 종교적 안녕 하위척도의 성적은 경미하지만 그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경미하게 높아졌다(r=.185, p<0.01)(Fig. 8).

고 찰

문화는 정신병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상태인 경험, 신념, 가치관 및 다양한 행동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종교와 영성이라는 차원의 문제인데 Lu와 Turner[22]는 종교나 영성은 정신병리적 접근방법으로 다루기보다 건강하고 안녕된 생활을 이끌어주는 근거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저자는 이러한 영성이 정신건

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적 안녕척도의 표준화 작업을 한 후 이와 비교해보고저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적 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저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인 연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선족 자치구의 조선족은 주로 일제시대에 이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족으로 해방 이후 이 지역을 조선족 자치구로 분할 받았으며 현재 연길시에는 조선족이 약 17만명 가량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적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19] 조선족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생활해 온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소위 마르크스주의 영성(Marxist Spirituality)을 말한 바 있다.[20] 비록 인간의 성품 중 영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의 역사로 볼 때 종교를 아편처럼 취급하여 금지시켜 왔음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마르크스주의가 모든 형태의 종교에 대하여 근본적인 적대감이 있음을 드러내 준 현상이라 하겠다.[21] 영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종교를 금지시킨 사회에서 영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정도가 정신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경향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정신건강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건강을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신의학적 증상을 중심으로 하여 허위성 경향, 정신병적 경향, 불안 및 우울 경향 등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즉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을 평가한 영적 안녕정도가 이들 경향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비교 검토하였다.

여성을 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남성보다 사회활동이 적은 편이나 종교생활자 중 여성이 더 많다는 일반적 현상[23]이 고려되었다고 하겠다.

인구학적 조사결과 종교를 가진 사람은 조사대상자 중 5.4%(24명)였고, 무신론자가 94.5%(376명)이었는데 이 통계자료를 1995년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미국 시민 중 무신론자는 7.5%, 규칙적인 종교생활자 19%, 이름만 종교인이거나 종교를 긍정적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51.5%로 유신론적 태도가 약 70.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와 본 조사결과와 상호 상반되는 내용이다.[22]

무신론자적 입장에서 영성을 평가한 총점은 68.29로 2001년 정성덕 등이 한국에서 83명의 기독교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수는 100.6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점수이다.[14]

먼저 허위성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다면적 인성검사 평가지침 상 유의한 성적인 70점 이상이 86%(344명)나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Hood[24]가 조사한 신비체험 내용 중 종교적 성향은 허위성 점수를 높여 주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런 경향은 편향적 사회행동과 관계된다고 했다. 이 점수가 높은 경우를 두고 관습적으로 순응하면서 개인의 독창적 사고가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한 점[25]은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높은 허위성 성적과 연결 지워볼 점이라 하겠다.

영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허위성 점수가 다소 낮았지만 유의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높은 허구성 점수는 무신론자의 일상생활태도를 반영한 결과인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일 뿐이다.

불안–우울 총점은 44.88로 1992년 서효석 등[26]

이 연변에서 조사한 조선족 노인의 불안-우울 총점인 44.44와 거의 비슷한 성적이었다. 또 같은 척도로 김영욱 등[27]이 한국 농촌지역에서 조사한 성적인 44.29와도 비슷한 결과였다.

그 다음 영적 안녕 총점과 정신병적 경향을 검토해보면 정신분열증 척도로 평가한 정신병적 경향은 영적 안녕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불안과 우울 성적은 영적 안녕 총점이 높을 때 어느 정도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런 결과는 종교적 안녕 하위성적(25.1)이 실존적 안녕 하위성적(43.27)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평가된 통계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두 개의 하위 척도 중 종교적 안녕정도와 정신건강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종교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정신병적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비하여 실존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정신병적 경향 및 불안과 우울 성적이 모두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영적 안녕 정도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영적 안녕 총점은 불안과 우울은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낮아지게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허위성이나 정신병적 경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영적 안녕총점은 정신건강 요인들에다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하위척도인 종교적 안녕정도와 실존적 안녕정도는 정신건강 요인들마다 유의한 방향을 제시해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즉 종교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정신병적 경향과 불안 및 우울 성적은 모두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무신론자가 다수로 조사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적 내용을 정신적으로 볼 때 불건강한 요인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화와 인격에 대하여 Kolb와 Brodie가[28] 언급한 바 습관적 경향이나 믿음 같은 것은 어떤 경우 개인적 스트레스와 정신병리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내용이라 하겠다. 즉 종교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 정신건강에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29]

공산주의 사회와는 다르지만 이와 대조해 볼 수 있는 국내 논문 중 이준석 등[30]은 종교나 종교성향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망상형성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겠으며 또 최영민 등[31]이 연구한 종교의 고유한 신앙체험이 치유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안정상태로 유지치료중인 외래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과정에 많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영적 안녕척도 중 종교적 안녕하위척도가 연변 여성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간접적 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적 중국 공산주의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방되고 있음과 Marxist도 영성이 있다는 주장을 참조한다면[32] 종교를 부정적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앞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실존적 안녕 하위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정신병적 및 불안과 우울 성적을 모두 낮추어 주어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존재가치가 긍정적일 때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준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실존적 공허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한 V. Frankl[33]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질병의 증상이라는 프로이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존적 회의는 인간의 의미를 촉발시키고 의미치료(Logo-therapy)는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면서 실존에 대한 인간의 강한 욕구를 유지시킨다고 한 바 있다. 또 이런 실존적 안녕감은 나이가 든 노년기에 더 높게 평가되며 절망감을 극복할 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 진다는 Farren[31, 34]의 조사와 상호 연관성을 찾아볼 내용이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영적 안녕척도의 두 하위척도인 종교적 안녕척도로 평가한 성적은 그 성적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상 부정적인 경향을 띄게 했으며 실존적 안녕정도는 그 성적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경향을 띄게 해 주어서 정신병적 경향과 불안 및 우울 경향을 감소시켜 주는 결과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영적 안녕총점과 종교적 안녕 및 실존적 안녕 두 하위 척도가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불안과 우울 척도를 사용한 성적과 유신론자의 성적을 직접 비교해 본다면 좋은 횡문화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요 약

자아초월 정신의학이 체계화되면서 영성(spirituality)은 인성의 한 부분이라는 이론이 대두되었는데 이 영성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인간의 성향 중 영적 안녕 정도를 파악하여 그 정도가 정신건강 중 허위성 경향, 정신병적 경향 및 불안과 우울 경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저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판 영적 안녕척도를 사용하여 영적 안녕정도를 파악하였다.

영적 안녕척도의 총점과 이 척도의 2개 하위 척도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척도 양자로 평가한 성적이 불안-우울통합척도와 정신분열증 척도 및 허위성 척도로 평가한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적 안녕척도로 평가한 조선족 여성의 총점은 68.29로 한국의 기독교 여성이 평가한 100.65보다 훨씬 낮은 점수였다.

2) 불안 · 우울통합척도로 평가한 총점은 44.88로 연변노인이 평가한 점수와 일개지역의 한국 농촌주민이 평가한 점수와 비슷한 결과였다.

3) 허위성 척도로 평가한 성적은 평균 74.57로 70점 이상이 86%(344명)이었으나 영적 안녕 성적과 허위성 성적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4) 영적 안녕총점은 정신분열증 척도로 평가한 정신병적 경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종교적 안녕하위척도의 성적은 정신병적 경향을 높여준데 비하여 실존적 안녕하위척도의 성적은 정신병적 경향을 낮게 해주었다.

5) 영적 안녕척도의 총점 및 두 하위척도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은 불안과 우울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영적 안녕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 우울 총점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 종교적 안녕 하위척도와 불안과 우울과의 관계는 종교적 안녕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을 각각 다소 유의하게 높여주었으며 이에 비하여 실존적 안녕하위척도와 불안과 우울과의 관계는 실존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불안

및 우울점수는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와 같은 성적을 미루어볼 때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이 평가한 영적 안녕정도는 정신병적 경향과 불안 및 우울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 척도의 하위 척도인 종교적 안녕정도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존적 안녕정도는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실존적 안녕은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평가되는 반면 종교적 안녕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영성, 조선족 여성, 정신건강

참 고 문 헌

1. Sutich AJ. Some considerations regarding transpersonal psychology. 1969. p. 11-20.
2. 정성덕, 김익창 자아초월정신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1969. p 11-5.
3. Strachey J, Freud 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 London: The Hogarth Press &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1973. p. 144-7.
4. Strachey J, Freud 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3. London; The Hogarth Press &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1973. p. 280.
5. 이근후, 박영숙, 우행원, 연규월.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1973. p.17.
6. 이부영. 분석정신의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95. p.59-60, 324-8.
7. 정성덕. Definition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of transpersonal psychology and psychiatry, In 1st Transpersonal Psychotherapy Workshop, 대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1999. p.55-65.
8. Scotton BW. Introduction and definition of transpersonal psychiatry. In Textbook of transpersonal psychiatry and psychology ed by Scotton BW, Chinew AB, Battista JR. New York; HarperColllins: 1999.
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Guideline regarding possible conflict between psychiatrist's religious commitment and psychiatric practice. Am J Psychiatry 1999;147:542.
10. Lukoff D, Lu FG, Turner R. Transpersonal Psychiatry in Psychiatry residency training programs. In textbook of transpersonal psychiatry and psychology ed. by Scotton BW. Chinnen AB, Battista JR, 1999. p.388-95.
11. Lokoff D. Lu FG. Cultural competence includes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s in clinical practice. Psychiatric Annals, Slack Incorporated Publication: 1999. p.469-72.
12. Benjamin J. Sadock, Virginia A. Sadock Kaplan & Sadock'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7th edition.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0. p.2216-17.
13. Leon KS. The Zen teachings of Jesus.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5. p. 26-8.
14. 정성덕, 이종범, 박형배, 김진성, 배대석, 이광헌, 사공정규, 송창진, 배진우. 한국판 영적 안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1; 40(2):230-42.
15. 김창수, 정성덕. 불안·우울 통합척도의 임상적 적용. 신경정신의학 1989;28(6):1000-8.
1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er : Fourth Edition: 1994. p.411-23.
17. Kaplan HI, Sadock BJ. Synopsis of Psychiatry 6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1.

p.321-22.
18. 김중술.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1988. p.31-5.
19. 이호영, 신승철, 이동근.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연구, 서울; 토담: 1994. p.38-44, 162.
20. 정용석.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p.27.
21. 엄성옥. 세계교회사 II,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p.261-99 :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Ed. by E. E. Cairns, Michican, Zondervan corporation.
22. Lukoff D, Lu G, Turner R. Cultural consideration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religious and spiritual problems.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995;18(3):467-84.
23. 유의웅. 한국교회와 사회선교. 서울; 예영코뮤니케이션: 1996. p.13.
24. Hood RW. The psychology of religion.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Inc: 1996. p.260-1.
25. Dahlstrome WG, Welsh GS, Dahlstrom LE. An MMPI handbook, Vol. 1 and Vol. 2. Univer.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60.
26. 서효석, 김봉진, 정성덕. 연변조선족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4;33(6):1313-20.
27. 김영욱, 정성덕. 농촌거주 네팔인과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횡문화적 연구. 영남의대학술지 1991;8(1):142-53.
28. Kolb LC, Brodies H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ia; BW Sounders Co.: 1982. p.160-168, 446-70.
29. 이상헌. 공산주의의 종언, 서울; 도서출판 일념: 1986. p.360-3.
30. 이준석, 김광일, 이종일. 정신분열병 환자의 종교성향과 망상에 나타난 박해자, 신경정신의학 1998;37(6):1023-33.
31. 최영민, 이정호, 이기철. 기독교 신앙이 외래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1998;37(6):1023-33.
32. 전인영, 김왕식. 중국 조선족의 정치사회화 과정과 동화적 국민통합의 방향. 서울; 집문당: 1996. p.151-3.
33. 고병학. 의미치료 : 빅터 프랭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 The Parsuit of Meaning : Victor Frankl, Logotherapy, and Life ed by Fabry JB, California, Institute of Logotherapy, 서울; 하나의학사: 1985. p. 69-70.
34. Farren CJ, McCanu. Longitudinal analysis of hope in community-based older adults. Arch Psychia Nur 1989;3(5):293-300.